

한형조
무문관 탐방
49
육조의 깃발

*바람이 짙은 깃발을 울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 승려는 깃발이 펄럭인다 하고, 또 하나는 바람이 펄럭인다 했다. 둘이 서로 육신각각하고 있다. 육조가 말했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들의 마음이 펄럭일 뿐이다." 두 승려는 이 말에 흠칫 놀랐다.

*나 해가 말한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또한 마음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서 육조의 뜻을 볼 것인가. 만약 여기서 절실한 과제가 있다면 알게 될 것이다. 두 승려가 침을 팔아 글을 얻으려 하고, 육조는 참을성 없이 끼어들어 결국 한 바탕 코메디가 벌어진 것임."

*승려가 가로되, "바람과 깃발, 마음의 펄럭임은 한 줄로 엮여 있다. 다만 알지니, 입을 열면 달력 낭패한다는 것을."
非風非幡:
六祖, 因風 纒幡, 有二 僧對論, 一云, 幡動, 一云, 風動, 往復會未契理, 祖云, 不是風動, 不是幡動, 仁者 心動, 二僧怦然, 無門曰, 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 心動, 甚處見祖師, 若向者 裏, 見得親切, 方知二僧買 鐵釘金, 祖師忍俊不禁, 一 場癡語, 頌曰, 風幡心動, 一狀鏡過, 只知開口, 不覺 語難.



바람·깃발·마음도 펄럭이지 않아

"거친것의 근원인 미세한것을 들여다 보자"

위를 짚은 바 있다. 의발을 찾아 끈질기게 따라붙은 해방에게 육조는 의발대신 선의 정수를 일러준 다음, 곧 종자를 감추었다. 한동안 화전민이나 사냥꾼 무리에 섞여 지내며 그들을 교화하다가 때가 무르익자 15년간의 오랜 은둔을 마치고 세상에 나섰다. 처음 들른 곳이 광주(廣州)의 법성사(法性寺). 그곳은 5조의 법맥을 이어받은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 살필 공간은 바로 그때의 일화로 은둔 이후의 해는 최초의 설법이라 할 수 있다. 산문을 들어서니 때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울고 있었다. 한 승려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자 다른 승려가 "아니, 바람이 움직인다"면서 다투었다. 해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일 뿐"이라 하여 좌중을 소스라치게 했다.

그렇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이 두 판단은 방식은 다르지만 자아가 본래 무차별의 실상을 특정한 의지와 의도에 따라 분별(分別)시킨 결과이다. 자이는 실재를 외국하고 실상을 기리는 어둠(無明)의 핵심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적 심리적 현상(五蘊)의 흐름(緣起) 뿐, 이것을 통합하는 영원한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무아(無我)의 교설은 석존의 깨달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의 다라마(法)론에서 대승의 중관과 유식을 거쳐 선과 탄트라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 정신이다.

바람과 깃발을 가른 것은 육조의 질타대로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대상은 자아의 활동에 의해 비로소 정립된다! 그때 "바람과 깃발, 마음의 펄럭임은 한 줄로 엮여 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인식과 판단의 구원론적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원효의 <대승기신론>을 권한다. <대승기신론>은 불과 및 페이지 안에 불교 교학의 전통을 군더더기와 수사는 잘라내고 골격만 남겨놓은 불교의 문법이자 설계도이다. 원효는 소외와 고통의 메카니즘을 미세한 것과 거친 것으로 나누었다. 거친 것은 드러나 있지만 미세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 거친 것의 근원인 미세한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명상과 수행의 힘이 필요하다. 빛을 쬐어 돌아보고(觀光返照) 시선을 거두어 발 밑을 돌아보아야 한다(照腳下). 그때 사바의 질박한 고통과 소외를 물고오는 인간의 뿌리깊은 사고습관의 정제와 의미를 깨닫

"진실하고 평온한 말을..."

작·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8



정어 ①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지고 나를 때는 집이 무겁지만 집을 나를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지요. 선이든 악이든 무엇이든지 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지도 마십시오.

탐욕·증오·망상 없는
조화로운 마음에서
평화·자비·지혜 생겨

마음의 길은 조화로우야 한다. 조화롭지 못한 마음에서는 평화, 자비, 지혜가 생겨나지 못한다. 또 우리는 조화롭지 못한 곳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자연법에 갈등하고 고통 당하기 쉽다. 마음의 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화란 바로 탐욕, 증오, 망상이 없는 경계를 일컫는 것이다. 삼독이라 불리는 이것들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해를 끼친다.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분명히 기분은 나빠지고 때론 심적 고통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뒤늦게 받을 때, "이 업(業)은 후일에 내게 특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화로운 삶에는 우리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담겨있다.

즐겁고 기쁜 업은 진실하고 평온하고 고결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언행(言行)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다.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마침내 그는 단을 이끄는 한 스승을 찾아갔다.

"수 세대를 거치는 동안 제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젊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깜짝 놀랐다. 스승에게는 어린 나이로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슬픔을 가리웠던 기억이 있었다. 이 일에 호기심을 느낀 스승은 젊은이 가족을 방문해 아버지를 만났다. 스승은 "당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급살(急殺)했다"고 거짓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그대 웃었다. 스승은 뼈조각을 보여주며 "당신 아들의 뼈다" "어린 양의 뼈군요" 스승은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웃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달콤하고 진실한 말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일터로 나섭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타인을 만날 때 마다 정직함과 고결함을 배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젊어서 죽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의 열린 마음, 깨달은 마음, 바로 선 마음을 읊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불교와 수학
52
자기조직

김용운

컴퓨터는 인간이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생각이 차츰 바뀌어가고 있다. 어느 컴퓨터 전문가가 컴퓨터에 초보적인 지식을 입력하여 작동하면서 차츰 고도의 일을 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안에 컴퓨터는 뜻밖에도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전혀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실험 동물과도 같이 점차 회로의 미로에서 스스로 상황 정보를 학습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생명체라면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발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가 마치 생명체처럼 임의의 상태에 몇 개의 간단한 규칙을 정해 주면 스스로 고도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발견이 요즘 과학계의 최대 관심사인 '인공생명'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실은 생물의 집단적 진화 과정에서는 이미 입증되어 있는 일이다. 생물 집단의 진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화 한 결과는 이것과 같은 패턴이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7

생물은 환경 조건에 따라 진화해 간다. 맘모스나 공룡 등은 새로운 지구 환경에 어울릴 수 없어서 전멸될 수밖에 없었다. 진화는 스스로 환경 조건을 학습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 가는 일이다. 이와같이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복잡적응계'라고 한다. 수학적인 입장에서 복잡적응계의 작동 상황을 관찰하여 몇 개의 두드러진 양상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어느 조직이 스스로 환경 조건을 학습하고 진화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적응 과정의 한 단면이다. (3) 모든 복잡적응계는 미래를 예측한다. 개체나 사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그것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환경된 폐쇄적인 조직체는 복잡적응계가 될 수 없음

고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보라'고 한다. 단 삼살 사이에도 비약적으로 마음의 세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경우이다. 복잡적응계는 선택의 범위가 너무 많고, 따라서 그 수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선택의 폭이 좁으면 각 요소가 균질화되고 결정된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남남의 개체가 혼자서 취할 수는 없다. 가까이 있는 다른 개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스스로 나아갈 길을 바꾸며 개정(진화)해 가는 것이다. 수행자에게 좋은 스승과 도반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같은 생명의 씨에서 출발한 생명체 가운데, 한 쪽은 인류로 진화되었으나, 반대로 바퀴벌레로 남아 있는 종도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대오를 얻어 성자가 될 수도, 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한 뜻에서 복잡적응계는 영원한 짐을 지낸다. 이들의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기계도 변하는 환경 학습통해 적응 수행자 스승·도반영향 성자로 발전

(1) 여러 개의 기본 단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여간다. 남남의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회 전체를 움직여 가는 것이 그 좋은 보기이다. (2) 복잡적응계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계층 내의 각 요소들이 모여 한 단계 위의 계층의 한 요소를 결정한다. 이때 위아래의 계열 전체는 영향을 주고 받아 수시로 행동을 수정, 재조정한다. 이 사실은 인간과 세포, 그리고 세포와 DNA의 계층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이때의 계층 조정과 재결합이 '적응'에 관한 기초적인 움직임이

의미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정지상태, 또는 평행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진화, 진보가 없으며 결국 죽음과 같은 상태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폐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왕권의 안전만을 위해 바깥 세계로부터의 어떠한 자극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 말기의 상황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을 개인에 빗대어 말하면 수행자의 길이다. 불교에서의 정진은 항상 스스로에게 자극을 가하며 발전해 가는 과정이다. 특히 선에서는 '사후를 보지않

수행자에게 좋은 스승과 도반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같은 생명의 씨에서 출발한 생명체 가운데, 한 쪽은 인류로 진화되었으나, 반대로 바퀴벌레로 남아 있는 종도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대오를 얻어 성자가 될 수도, 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한 뜻에서 복잡적응계는 영원한 짐을 지낸다. 이들의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만물제등 천지동근(萬物齊同 天地同根. 모든 것은 같고 천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이며, 둘과 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낱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까지 자기적응이라는 형식으로 미치고 있다. 하물며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주변의 환경과 어울려 최고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킴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자수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종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은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병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이 도와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된 각종 약재가 포함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